

대학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성향 및 스포츠 대처능력의 관계

서은철(원광대학교 교수) · 심영균*(사천대학교 초빙교수) · 김수연(상지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성향 및 스포츠 대처능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대학교 남·여 태권도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중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8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처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jamovi 1.0.1,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모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 대처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실수인식, 완벽주의성향, 스포츠 대처능력, 대학태권도선수

*simco76@naver.com

I. 서론

운동선수들에게 시합은 자신이 쌓아온 경기력을 발휘하는 결실의 맺는 순간이자 실력이 평가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시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강유선, 2011).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선수들은 시합에 임할 때 근육의 경직, 집중력 저하, 심리적 부담감 등이 증가하여 최상의 경기수행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들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박상섭, 남경완, 임승현, 2017; Jung, Hesketh, & Neal, 2006). 즉, 높은 수준의 불안은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 중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실수는 모든 종목에서 치명적이지만 투기종목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태권도는 2회전 종료시점 또는 3회전 중 언제라도 20점차가 날 경우 패배와 직결되기 때문에(대한태권도협회, 2020) 선수들은 실수를 최소화 하고 대량 실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더 큰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심영균, 이석준, 정우민, 2019; 정상훈, 김희용, 2014).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 들어 실수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실수를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실수인식이 제시되고 있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신준하, 허진영, 2019; 심영균 등, 2019).

실수인식은 개인의 인지, 행동, 정서적 경향성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Rybowiak, Garst, Frese, & Batinic, 1999), 심리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수인식은 실수에 대한 발생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실수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2014; 신준하, 허진영, 2019). 특히, 실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이후의 행동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실수인식에 대한 기존연

구들은 실수를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Frese & Keith, 2015; Rybowski et al., 1999; Lazarus & Folkman, 1984). 실수-기반 학습(error-driven learning)이론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실수인식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며, 긍정적 활용을 통해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Joung, Hesketh, & Neal, 2006; Santagata, 2005). 이러한 실수인식은 국내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되어 실수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신준하, 허진영, 2019). 구체적으로, 심영균 등(2019)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실수인식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실수인식은 자기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관리 수준이 높은 선수는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선수로 발전하여 오랜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상섭, 남경완, 임승현, 2017).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실수인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선수들의 동기적 성향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tober & Joormann, 2001).

동기적 관점에서 실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실수에 대한 지각 수준과 완벽주의 성향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Ferrari & Thompson, 2006, Stober & Joormann, 2001). 즉, 실수 지각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를 추구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변명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유영란, 2011).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개념을 고려할 때 실수인식과 완벽주의성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실수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perfectionism) 또한 과거에는 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임태희, 2009).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접근이 보다 각광받고 있다(Suddarth & Johnson, 1990). 임태희, 이근춘, 김원배(2005)는 스포

츠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완벽주의 척도개발을 통해 개인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와 개인의 기준으로 구성되고 타인적 완벽주의는 부모기대, 부모비난, 그리고 코치압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 분야에서도 완벽주의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완벽주의 성향은 선수의 자신감, 성취동기, 자기관리 등(서은철, 허진영, 2014; 임태희, 2009; Stoeber, Feast, & Hayward, 2009)과 같이 수행향상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실수인식과 완벽주의성향은 선수들의 심리적 대처능력과 같은 역량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성현, 김유나(2018)는 선수의 완벽주의 성향이 수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측면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Garmezy & Rutter(1983)는 대처능력이 높은 사람은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학업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처능력은 선수가 훈련 또는 시합장면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며 이는 경기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수들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스포츠 대처능력에 어떻게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및 스포츠 대처능력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실수인식을 통해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태권도 선수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및 위기대처능력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실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실수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대학태권도 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대학태권도 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대학 태권도 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020년 1월 15일~4월 15일 약 3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대학교 팀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명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이를 동의한 대학교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학태권도선수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편의표본추출법을 총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중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불성실하게 작성한 12부를 제외한 388부를 최종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88	74.2
	여자	100	25.8
입상경력	유	278	71.6
	무	110	28.4
운동경력	5년 미만	78	20.1
	7년 미만	102	26.3
	9년 미만	83	21.4
	12년 미만	79	20.4
	12년 이상	46	11.9
합		388	100%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응답반응은 5점 Likert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Rybowski et al.(1999)이 개발한 실수인식 척도(EOQ)를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2014)이 국내 여건에 맞게 번안하고 서은철, 심영균(2020)이 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실수인식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수로부터 학습 4문항,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4문항, 실수에 대한 부담 4문항, 실수에 대한 고찰 5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설문지는 Hewitt &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를 한기연(1993)이 국내 여건에 맞게 번안하고 조현익, 소영호(2010)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5문항, 타인지향 완벽주의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스포츠 대처에 대한 설문지는 유진, 박성준(1998)이 개발한 스포츠 대처 척도(Korean Athlete Sport Coping Scale)를 송남정,곽정현(2012)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8문항, 정서 중심적 대처 5문항, 회피 5문항, 초연 5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수인식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chi^2=288$, $df=113$, TLI=.929, CFI=.941, RMSEA=.063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성향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1, 12, 13번 문항을 제거한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chi^2=62.1$ $df=19$, TLI=.954, CFI=.968, RMSEA=.076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대처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12, 13, 18, 19, 20, 23번 문항을 제거한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chi^2=335$, $df=129$, TLI=.920, CFI=.932 RMSEA=.064로 나타났다<표 2>.

표 2. 잠재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t	α		
실수인식	실수학습	→ a4	1.000	.689	-	.841		
		→ a1	1.161	.795	13.3***			
		→ a2	1.115	.799	13.3***			
		→ a3	1.077	.741	13.0***			
	실수도전	→ a5	1.000	.754	-	.839		
		→ a6	.929	.759	14.2***			
		→ a7	1.056	.805	15.0***			
		→ a8	.939	.699	12.9***			
	실수부담	→ a12	1.000	.633	-	.807		
		→ a9	1.228	.746	10.7***			
		→ a10	1.215	.757	10.8***			
		→ a11	1.136	.738	11.4***			
		→ a14	1.000	.678	-			
		실수고찰	→ a13	1.038	.673		11.8***	.835
			→ a15	1.157	.745		12.5***	
	→ a16		1.105	.738	12.0***			
	→ a17		1.110	.722	11.9***			
$\chi^2=288, df=113, TLI=.929, CFI=.941, SRMR=.046, RMSEA=.063$								
완벽주의성향	자기지향	→ b2	1.000	.715	-	.850		
		→ b3	1.140	.738	13.4***			
		→ b4	1.160	.801	14.1***			
		→ b5	1.140	.783	13.6***			
	타인지향	→ b9	1.000	.679	-	.806		
		→ b6	1.190	.765	12.2***			
		→ b7	1.200	.748	12.3***			
		→ b8	1.130	.776	13.2***			
$\chi^2=62.1, df=19, TLI=.954, CFI=.968, SRMR=.033, RMSEA=.076$								
스포츠 대처능력	문제	→ c1	1.000	.676	-	.858		
		→ c3	.998	.700	12.3***			
		→ c4	.999	.641	11.3***			
		→ c5	1.027	.642	11.2***			
		→ c6	1.014	.652	11.4***			
		→ c7	1.033	.651	11.3***			
		→ c8	.914	.620	10.8***			
		→ c2	1.000	.682	12.2***			
	정서	→ c11	1.000	.648	-	.711		
		→ c9	1.133	.697	10.7***			
		→ c10	1.011	.669	10.6***			
		→ c14	1.000	.646	-			
		회피	→ c15	1.428	.831		13.7***	.893
			→ c16	1.543	.894		14.1***	
→ c17	1.628		.857	13.9***				
초연	→ c20	1.000	.755	-	.761			
	→ c21	.962	.729	12.3***				
	→ c22	.928	.672	11.1***				
$\chi^2=335, df=129, TLI=.932, CFI=.920, SRMR=.053, RMSEA=.064$								

***p<.001

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의 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jamovi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신뢰도분석(Cronbach α)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정규성 검증

이 연구에서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추정을 최대우도법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왜도, 첨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왜도=-.380~.603, 첨도=-.334~.269로 나타나 Kline(2011)이 제시한 기준(왜도 ± 2 이하, 첨도 ± 8 이하)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규성 검증

변수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실수인식	실수학습	.268		-.148
	실수도전	.153	.124	-.334
	실수부담	-.380		.233
	실수고찰	.569		.269
완벽주의성향	자기지향	.287	.124	.262
	타인지향	.240		-.024
스포츠 대처능력	문제중심적대처	.213		-.029
	회피	.603	.124	.034
	정서중심적대처	.525		-.144
	초연	.087		-.263

2.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과 같이 상관계수가 .08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표 4. 상관관계 분석

구분	실수 학습	실수 도전	실수 부담	실수 고찰	자기 지향	타인 지향	문제	정서	회피	초연
학습	1									
도전	.602**	1								
부담	-.275**	-.368**	1							
고찰	.530**	.523**	-.508**	1						
자기	.350**	.289**	-.344**	.369**	1					
타인	.193**	.217**	-.407**	.355**	.464**	1				
문제	.522**	.471**	-.391**	.569**	.497**	.364**	1			
정서	.461**	.406**	-.306**	.442**	.399**	.313**	.232**	1		
회피	.157**	.180**	-.406**	.360**	.161**	.383**	.286**	.093	1	
초연	.323**	.378**	-.334**	.502**	.254**	.317**	.449**	.331**	.511	1

** $p < .01$

3. 측정모형 검증

Anderson 과 Gerbing(1988)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와 같이 적합도는 $\chi^2=100.846$, $df=24$, TLI=.910, CFI=.940, RMSEA=.091, SRMR=.053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χ^2	df	TLI	CFI	RMSEA	SRMR	p
측정모형	100.846	24	.910	.940	.091	.053	.000

4.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 (statistical model)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가설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1.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잠재변수	B	β	t	검증결과
1	실수인식 → 완벽주의성향	.613	.575	7.249***	채택
2	완벽주의성향 → 스포츠 대처능력	.270	.286	4.513***	채택
3	실수인식 → 스포츠 대처능력	.645	.640	8.992***	채택
$\chi^2=100.846$, $df=24$, $TLI=.910$, $CFI=.940$, $SRMR=.053$, $RMSEA=.091$					

*** $p < .001$

IV. 논의

이 연구는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스포츠 대처능력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이 완벽주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해 한다는 연구결과(Frese & Keith, 2015; Keith & Frese, 2005; Metcalfe, 2007)들

을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Metcalfe(2007)는 실수를 통한 학습은 보다 깊은 심화된 개념 학습을 유도하여 완벽주의성향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수행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수를 통한 노력, 그리고 실수를 통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실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실수 그 자체를 수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완벽주의성향이 증가하는 경험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실수를 동기유발, 의도적 연습, 도전감, 긍정적인 사고방식 등이 증가시키기 위한 촉진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도자는 성장의 발판의 원동력이 되는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멘탈모델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반복적인 훈련보다는 새로운 훈련방법, 창의적인 훈련방법들을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이 스포츠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정상훈, 김희용, 2014; 정성현, 김유나, 2018; DeLongis & Holtzman, 2005)들을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서은철, 허진영(2014)은 운동선수들에게 완벽주의성향이 증가하면 스포츠 대처능력 또한 증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완벽주의성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스포츠 대처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수들과 면담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이 스포츠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수인식은 스포츠 대처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수와 같은 역경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탐구한 연구결과(김영숙, 2019)를 지지하고 있다. 김영숙(2019)은

선수들이 실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태도나 전략이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선수들의 스포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실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생각, 발전적 태도, 회복탄력성, 성취목표성향 등과 같은 심리 변인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수연, 심영균, 2020; 신중호, 최효식, 연은모, 홍운정, 2015). 그러나 이러한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 지도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일반 학습 환경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습자들의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오아름, 신태섭, 2017)를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비록 이와 관련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지만, 스포츠 환경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수들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과 스포츠 대처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선수는 더 완벽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경 상황에 잘 대처한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지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대학태권도 남녀 겨루기 선수 388명을 대상으로 실수인식, 완벽주의 성향, 스포츠대처능력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대처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대처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태권도선수들이 실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과 스포츠대처능력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를 고찰하고 학습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특정 지역(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실수인식, 완벽주의성향, 스포츠 대처능력의 관계를 알아보는 관계분석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학년별,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잠재프로파일과 같은 연구방법과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정현, 송남정(2012).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자기관리와 스포츠자신감 및 스포츠 대처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1), 547-558.
- 김수연, 심영균(2020).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과 번아웃 및 탈퇴동기의 관계. **국기원태권도연구**, 11(1), 81-100.
- 대한태권도협회(2020). **2020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 박상섭, 남경완, 임승현(2017). 검도선수들의 다차원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관리가 상태자신감 및 경기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3),

55-69.

- 서은철, 심영균(2020). Rasch 모형을 적용한 실수인식 척도의 문항 양호도 검증.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1(2), 265-279.
- 서은철, 허진영(2016). 기계제조선수의 완벽주의 성향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따른 대처전략의 차이.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499-513.
- 신중호, 최효식, 연은모(2014). 학교목표구조, 개인목표성향 및 학업적 자기평가가 학습자의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1), 225-249.
- 신중호, 최효식, 연은모, 홍윤정(2015). 성취지향목표가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9(1), 113-133.
- 심영균, 이석준, 정우민(2019).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과 자기관리 및 인지된 경기력에 관계.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0(2), 83-98.
- 유영란(2011). 무용수업에서 완벽주의와 실수 걱정이 학생의 자기변명에 미치는 효과. **예술교육연구**, 9(1), 203-215.
- 유진, 박성준(1998). 스포츠 대처 척도의 개발과 구조적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37(2), 151-168.
- 임태희(2009). 태권도 경기력 모형개발과 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체육과학연구**, 20(1), 58-70.
- 임태희, 이근춘, 김원배(2005). 태권도 선수의 완벽주의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2), 131-148.
- 정상훈, 김희용(2014). 대학운동선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513-524.
- 정성현, 김유나(2018). 육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완벽주의가 스포츠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1041-1051.
- 조현익, 소영호(2010). 운동선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대처 및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1(2), 1235-1247.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 Bulletin*, 1033), 411-423.
- DeLongis, A., & Holtzman, S. (2005). Coping in context: The role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in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633-1656.
- Ferrari, J. R., & Thompson, T. (2006). Impostor fears: Links with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elf-handicapping behaviou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2), 341-352.
- Frese, M., & Keith, N. (2015). Action errors, error management, and learning in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 661-687.
- Garmezy, N. E., & Rutter, M. E.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In Seminar on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1979, Ctr for Advanced Study in the Behavioral Sciences*. Stanford, CA, U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
- Joung, W., Hesketh, B., & Neal, A. (2006). Using “war stories” to train for adaptive performance: Is it better to learn from error or success?. *Applied Psychology*, 55(2), 282-302.
- Keith, N., & Frese, M. (2005). Self-regulation in error management training: emotion control and metacognition as mediators of performance effec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4), 67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etcalfe, J. (2017). Learning from erro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8, 465-489.
- Rybowiak, V., Garst, H., Frese, M., & Batinic, B. (1999). 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 Reliability, validity, and different language

- equivale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0(4), 527-547.
- Santagata, R. (2005). Practices and beliefs in mistake-handling activities: A video study of Italian and US mathematics lesson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1(5), 491-508.
- Slaney, R. B., & Johnson, D. G. (1990). *The Almost Perfect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University.
- Stober, J., & Joormann, J. (2001). Worry, procrastination, and perfectionism: Differentiating amount of worry, pathological worry,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1), 49-60.
- Stoeber, J., Feast, A. R., & Hayward, J. A. (2009).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test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5), 423-428.
- Suddarth, B. H., & Slaney, R. B. (2001). An investigation of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3), 157-165.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errors, Perfectionism propensity and Sports coping skill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Seo, Eun-Chul(Wonkwang University)
Sim, Young-Kyun(Sichan university) · Kim, Su-Yeon(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errors, Perfectionism Propensity and sports coping skill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In order to achieve this, a sample of 400 drawn out of the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from Seoul, Gyeonggi, Chungbuk, and Jeonbuk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Data acquired from 12 people were excluded due to inconsistency in their responses. Therefore, the data of 388 people was used for a 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3.0, jamovi 1.0.1 and Amos 23.0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error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was a found to has a positive effect on perfectionism propensity. Second, the perfectionism propensity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was found to has a positive effect on sports coping skills. Third, the perception of error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was found to has a positive effect on sports coping skills.

Key words: Perception of errors, perfectionism propensity, sports coping skills,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논문투고일 : 2020.06.29.

심사일 : 2020.07.10.

심사완료일 : 2020.07.31.

